

-아/어 내다

끝내 ~해 내다, 끝까지 해내다

어려운 일을 끝까지 해낸 것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. -아/어 대다가 반복을 불평하는 표현이라면, 이 보조 동사는 끈기를 칭찬합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마지막 모음 ㅏ 또는 ㅑ	-아 내다	참다 → 참아 내다
그 밖의 모음	-어 내다	만들다 → 만들어 내다
하다 동사	해 내다	해 내다 — 해내다
극복	이기다, 참다, 견디다	이겨 내다
산출	만들다, 찾아, 밝혀다	밝혀 내다
필요 조건	어려움	את아 내다는 틀림

■ 언제 쓰나요

모음은 -아요/어요 규칙을 따릅니다: 이겨 내다, 참아 내다, 견뎌 내다, 만들어 내다, 밝혀 내다.

반드시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다. 이 보조 동사는 저항을 무릅쓰고 행동을 끝까지 해냈다는 뜻이므로, 이기다, 참다, 견디다, 버티다와 아주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.

두 번째 부류는 없던 것을 만들어 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: 만들어 내다, 찾아 내다, 밝혀 내다, 이끌어 내다. 이때는 무언가를 밖으로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.

평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긍정적입니다 — 감탄이나 안도를 나타냅니다. 바로 이 점이 다음 표현과의 차이입니다: -아/어 버리다. 이 표현은 어려움과 무관하며, 흔히 아쉬움이 묻어납니다.

■ 예문

- 1 그는 오랜 병을 끝내 이겨 냈습니다.
- 2 힘든 시기를 잘 견뎌 냈어요.
- 3 연구진이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냈다.
- 4 수사팀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 냈습니다.
- 5 끝까지 참아 낸 것이 대단합니다.
- 6 불리한 조건에서도 결국 해 냈다.

■ 비교

-아/어 버리다

버리다는 안도나 아쉬움과 함께 완료를 나타내며, 어려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. 내다는 특히 어려움을 이겨 냈음을 인정합니다.

다 써 버렸어요. (다 써 버려서 아쉽다) / 다 써 냈어요. (끝까지 다 썼다)

-고 말다

정반대의 평가입니다. -고 말다는 원하지 않던 결과를 전하고, -아/어 내다는 애써 얻어 낸 결과를 전합니다.

포기하고 말았다. (결국 포기했다) / 견뎌 냈다. (끝까지 버텼다)

-아/어 대다

함께 익혀 둘 짝입니다. 둘 다 행동의 양태를 나타내는 보조 동사이며, 정반대의 평가를 담습니다.

참아 냈어요. (훌륭하게 참았다) / 떠들어 댔어요. (지겹도록 떠들었다)

■ 주의

✗ 의자에 앉아 냈어요.

○ 의자에 앉았어요.

내다는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다. 쉬운 행동에는 인정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.

✗ 실수로 컵을 깨 냈어요.

○ 실수로 컵을 깨 버렸어요.

내다는 칭찬의 표현입니다. 실수로 일어난 일에는 버리다가 아쉬움을 나타냅니다.

✗ 그는 결국 포기해 냈다.

○ 그는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.

포기는 성취가 아닙니다. 원하지 않던 결말에는 -고 말다를 씁니다.